

호남 정치권·청와대 '광주·전남 행정통합' 합의할까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장·지사·국회의원들 참석 간담회서 의견조율
“호남의 미래 바꿀 천재일우 기회” 시·도 지사 행정통합 선언문 발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6월 통합 자치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선언한 가운데 시·도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간담회에 비상한 관심이 쏟인다.

〈관련기사 3면〉

최근 이 대통령이 SNS에서 광주·전남 통합선언을 반긴 데 이어 곧바로 오는 9일로 간담회 일정을 잡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5·3 특’을 끌자로 한 지방육성책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충청권 간담회에서 대전·충남통합을 주문한 바 있어, 광주·전남에도 같은 당부와 함께 통합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9일 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간담회에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예정했으나 시·도지사까지 참석하는 확대 간담회로 성격이 변했다고 전해진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 전격 시·도통합을 선언하자 이들을 간담회 참석자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하루 만에 숨 돌릴 틈도 없이 호남의 통합 이슈를 직접 쟁다다는 점은 시시각각이다.

이는 현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모델로 삼고 있으며,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가 행정통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선물 보따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통합 지자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격상’은 물론 조직 특례와 파격적인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물리적 시간은 5개월뿐”이라는 현실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배수진을 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같은 믿음이 깔려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양 시도는 이번 기회를 호남의 미래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로 삼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양 단체장은 통합을 호남 소멸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으로 규정했다.

강 시장은 “지지부진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고 강조했으며, 김 지사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의 획기적 혜택을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광주시는 4일 실무진 조율을 거쳐 5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6일에는 광주시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치권 역시 입법 지원으로 힘을 보탠다.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당 차원의 지원 태스크포스(TF) 가동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구·경북 등 타 지자체의 통합 움직임과 연계해 국회 문턱을 넘는다는 전략이 주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줄속 우려’에 대해서 광주시와 전남도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라는 논리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태세다. 과거처럼 절자적 완벽함만 추구하다가는 또다시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통상 수년이 걸리는 행정통합 절차를 불과 5개월 만에 해치우겠다는 구상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사회의 충분한 합의 없이 단체장의 의지와 중앙정부의 지원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통합 이후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의 핵심 절차인 시·도민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거나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같은 맥락이다.

통합 절차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시·도 의회의 미묘한 입장차도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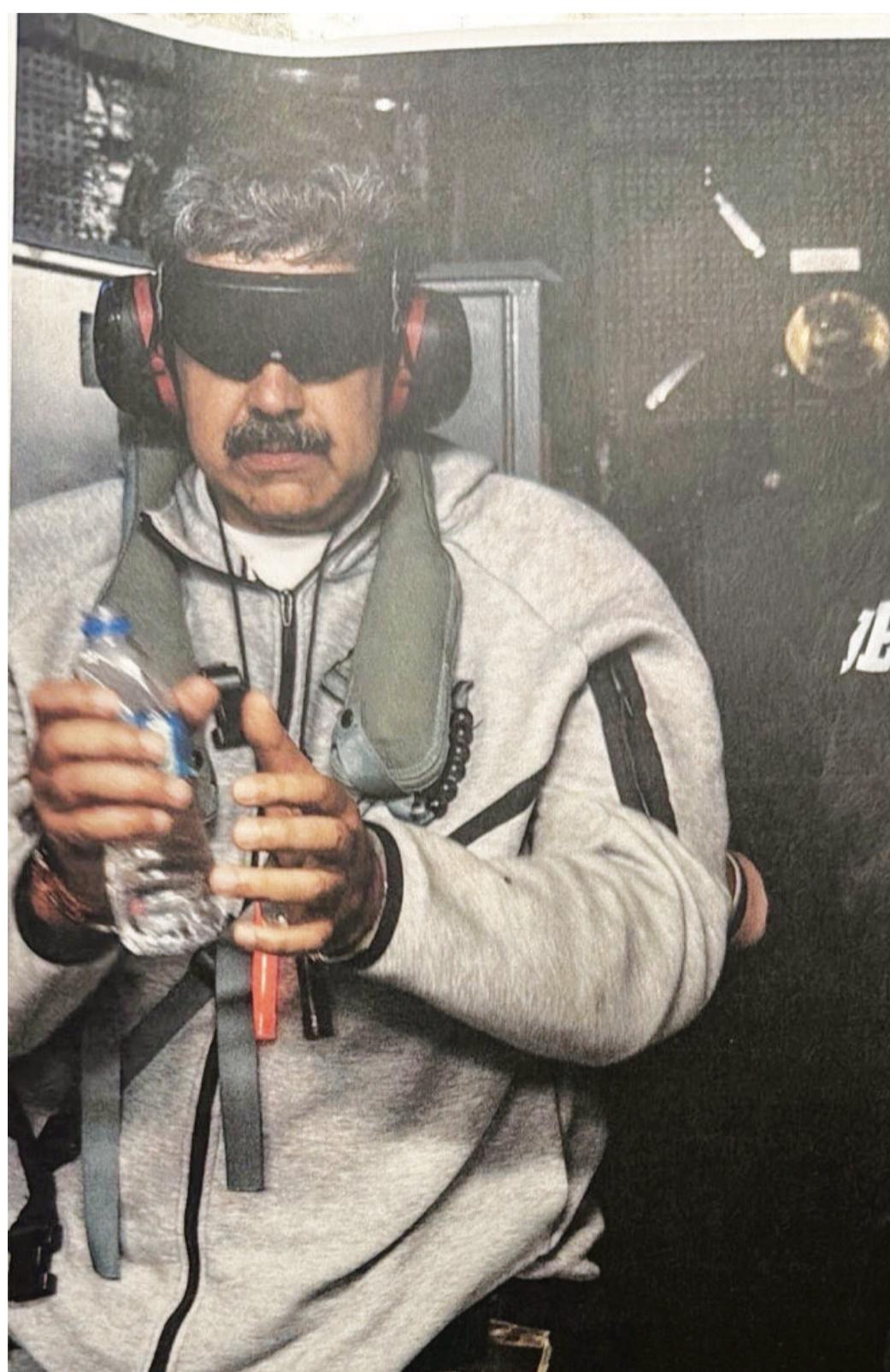
실제 지난 2일 공동선언식에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참석한 반면,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판이 커진 상황에서 쪼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9일 간담회에서 확보할 정부의 확실한 지원책을 무기 삼아 시도민에게 통합의 당위성과 실리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제언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두 단체장의 결단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환영하면서도 “통합 과정이 같아야 아닌 지역 역량을 결집하는 자산이 되도록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호남권 발전을 견인할 중추 거점 도시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1986년 11월 1일 전남도 관할에서 분리돼 직할시로 승격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으로 체포·압송되고 있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압송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마두로 체포·압송

트럼프 “정권이양까지 베네수엘라 통치”

미국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고 본토로 압송했다. 〈관련기사 4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전한 정권이 양이 이뤄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며 사실상 직접 통치를 선언했다.

미군은 이날 새벽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을 통해 카리카스 안전 가옥에 은신 중이던 마두로 부부를 체포했다.

작전에는 F-22와 F-35 등 150대가 넘는 항공기가 동원됐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체포를 넘어 서반구 내 미국의 지배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중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를 원천 차단하고 콜롬비아와 쿠바 등 여타 반미 정권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 정보당국은 이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마두로의 사소한 동선과 식사 메뉴, 애완동물 정보까지 파악할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안가 모형을 제작해 침투 훈련을 반복했다. 당초 작전은 작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승인됐으나 민간인 피해 최소화와 악전후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시기를 조율한 끝에 이날 단행됐다.

마두로는 뉴욕으로 이송돼 마약 테러리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밀레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마두로를 이미 기소한 미국은 그를 다음 주 맨해튼 연방법원 법정에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마두로 체포·압송이 정당한 사법권 행사임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는 법무부 관리들을 이번 작전에 투입해 체포 직전 마두로 대통령 부부에게 법적 권리도 직접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석유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해 파괴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원유 생산을 늘릴 것”이라며 “그 수익으로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마두로 축출에 놀랐나? …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900여km 비행해 동해상에 낙하

북한이 4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

이는 올해 첫 무력시위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0분경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900여km를 비행

해 일본과 러시아 사이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거리와 궤적을 고려할 때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11’이 가능성이 무게를 두고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는 이 대통령의 방중 시점과 맞물려 있다. 5일 회담에서 논의될 북한 비핵화 의제를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작전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된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이 베네수엘라와 달리 자신들은 미국에 맞설 수 있는 확실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2026 희망 키워드 - ‘나눔’ 박종수 치과의사 ▶6면
광주일보 신춘문예 동화·시 당선작 ▶16·17면
공간의 재발견 - 장흥 ‘빼빼옹 Zip’ ▶22면

SAMSUNG

새로운 꿈을 펼치는 2026년

끊임없는 도전의 발걸음마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꿈과 상상이 현실이 되길 기원합니다

<div style